

국제石油정세변화와 산유국의 石油거래형태

1. 상승세의 스파트석유 가격

지난 6월 OPEC 총회는 금년 하반기 생산 상한선을 하루 1,660만배럴로 제한할 것을 합의했다. 또 소련에 이어 美國에 의해 쿠웨이트 유조선 호위가 개시됨에 따라 페르시아灣 정세가 더욱 긴박해졌기 때문에 NYMEX의 WTI의 원유 선물가격 및 北海브렌트 원유의 스파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OPEC 원유의 스파트가격도 18달러 고정유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황의 호전을 배경으로 주요 OPEC 산유국들은 달러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에 의한 판매능력의 저하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에는 原油가격을 20달러 수준으로 인상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시장환경하에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原油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미·소등 강대국이 개입하여 국제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란·이라크 전쟁의 향방이다.

2. 이란·이라크 전쟁과 3가지 原油가격 시나리오

격화되고 있는 페르시아灣의 유조선 전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휴전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한편, 美國과 이란의 군사적 대결로 발전할 위험성이 증가되는 등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으로의 이란·이라크 전쟁의 향배에 관한 3가지 케이스를 상정, OPEC 원유의 스파트가격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1. 유조선 전쟁이 계속되는 케이스(18-20달러)

6월의 OPEC 총회에서의 감산합의와 이란·이라크 쌍방에 의한 유조선공격 재개에 의해 페르시아灣으로부터의 석유공급불안이 고조돼, 금년말경에 석유스파트 가격은 배럴당 20달러에 접근할 것이다. 현재의 18달러 고정유가는 하한가격이 되고 NYMEX의 WTI의 原油선물가격은 일시적으로 22달러 선까지 상승할 것이다.

2. 美·이란 군사대결 케이스(25-30달러)

美國의 쿠웨이트 유조선 호위개시를 계기로 美國과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충돌로 확대될 경우 일시적으로 호르무즈협협을 통과하는 石油수송이 지장을 받게될 것이다. 그와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WTI의 原油선물가격 및 기타 原油의 스파트가격은 일시적으로 25-30달러정도로 급등할 것이다. 그러나 석유수출 전량을 호르무즈협협에 의존하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그와같은 사태유발은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장기간 계속시킬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스파트가격은 또 다시 20달러선으로 떨어질 것이다.

3. 일시 휴전 케이스(16-18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란·이라크 전쟁의 노력이 실효를 거둬 일시휴전이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페르시아灣에서의 유조선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에서는 경제 부흥을 위해 증산압력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스파트가격은 16-18달러선으로 떨어져 18달러 고정가격은 상한가격이 될 것이다.

금년 후반을 전망해 볼때 이란의 호메이니옹과 이라크의

〈表 - 1〉 자유세계의 석유공급형태(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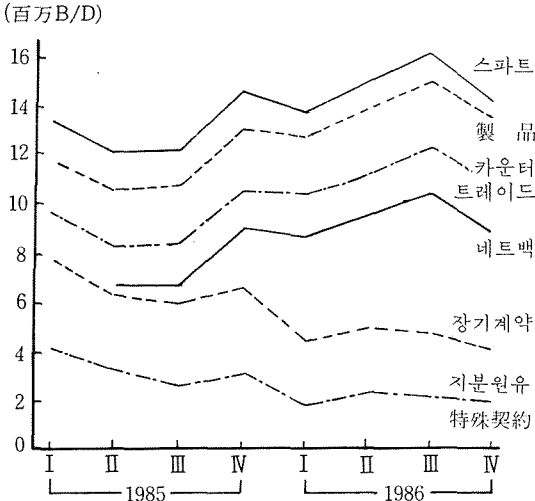
	(만B/D)						(%)					
	中東	아프리카	歐州	極東濠洲	中南美	自由世界計	中東	아프리카	유럽	極東濠洲	中南美	自由世界計
原油輸出	918	304	332	196	268	2,018	89.9	86.6	71.4	89.9	76.4	83.9
장기계약	608	154	105	95	177	1,139	59.5	43.9	22.5	43.6	50.4	47.3
┌ 公式價格	0	15	0	62	20	97	0.0	4.3	0.0	28.4	5.7	4.0
├ 스파트	150	0	21	16	108	295	14.7	0.0	4.5	7.3	30.8	12.3
├ 네트백	433	135	42	7	0	617	42.4	38.5	9.0	3.2	0.0	25.6
└ 기타	25	4	42	10	49	130	2.4	1.1	9.0	4.6	13.9	5.4
스파트판매	70	10	210	14	26	330	6.9	2.8	45.2	6.4	7.4	13.7
지분원유	93	84	0	69	2	248	9.1	23.9	0.0	31.7	0.6	10.3
카운터트레이드	132	48	17	4	0	201	12.9	13.7	3.7	1.8	0.0	8.4
海外提携會社	13	8	0	0	63	84	1.3	2.3	0.0	0.0	17.9	3.5
委託精製	2	0	0	14	0	16	0.2	0.0	0.0	6.4	0.0	0.7
石油製品輸出	103	47	133	22	83	388	10.1	13.4	28.6	10.1	23.6	16.1
제 3 자	63	47	133	22	48	313	6.2	13.4	28.6	10.1	13.7	13.0
海外提携會社	40	0	0	0	33	73	3.9	0.0	0.0	0.0	9.4	3.0
기타	0	0	0	0	2	2	0.0	0.0	0.0	0.0	0.6	0.1
輸出計	1,021	351	465	218	351	2,4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表 - 2〉 OPEC의 석유공급형태(1986)

	(만B/D)					(%)				
	中東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중남미	OPEC計	中東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중남미	OPEC計
原油輸出	867	265	79	127	1,338	89.4	85.7	84.0	62.3	84.8
장기계약	580	139	39	49	807	59.8	45.0	41.5	24.0	51.2
┌ 公式價格	0	0	39	0	39	0.0	0.0	41.5	0.0	2.5
├ 스파트	122	0	0	0	122	12.6	0.0	0.0	0.0	7.7
├ 네트백	433	135	0	0	568	44.6	43.7	0.0	0.0	36.0
└ 기타	25	4	0	49	78	2.6	1.3	0.0	24.0	4.9
스파트판매	70	10	0	13	93	7.2	3.2	0.0	6.4	5.9
지분원유	70	60	40	2	172	7.2	19.4	42.6	0.1	10.9
카운터트레이드	132	48	0	0	180	13.6	15.5	0.0	0.0	11.4
海外提携會社	13	8	0	63	84	1.3	2.6	0.0	30.9	5.3
委託精製	2	0	0	0	2	0.2	0.0	0.0	0.0	0.1
石油製品輸出	103	44	15	77	239	10.6	14.2	16.0	37.7	15.2
제 3 자	63	44	15	42	164	6.8	14.2	16.0	20.6	10.4
海外提携會社	40	0	0	33	73	4.1	0.0	0.0	16.2	4.6
기타	0	0	0	2	2	0.0	0.0	0.0	0.1	0.1
輸出計	970	309	94	204	1,577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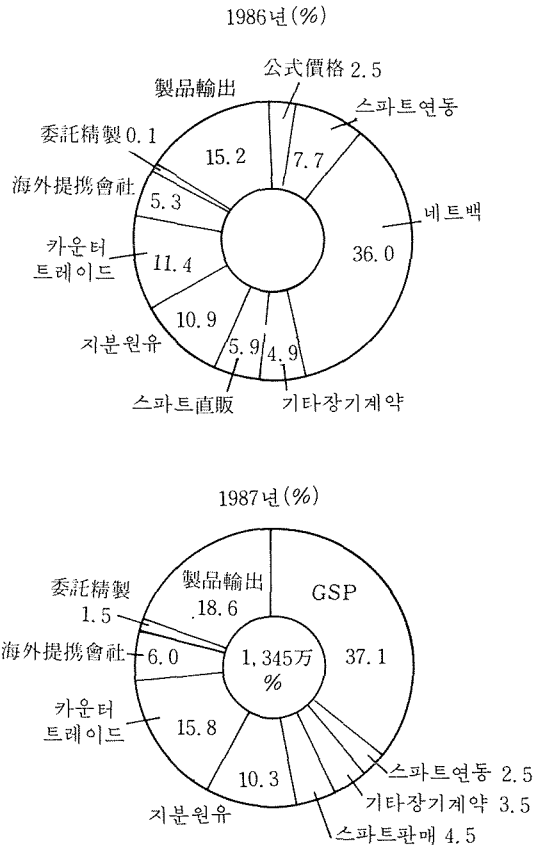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견제해 있는한 이란이 휴전에 응할 가능성은 없고, 제3의 일시휴전이 실현될 가능성은 대단히 적을 것이다.

(그림 - 1) OPEC의 판매형태



(자료) Financial Times March 23 1987.
Petroleum Economist

(그림 - 2) OPEC판매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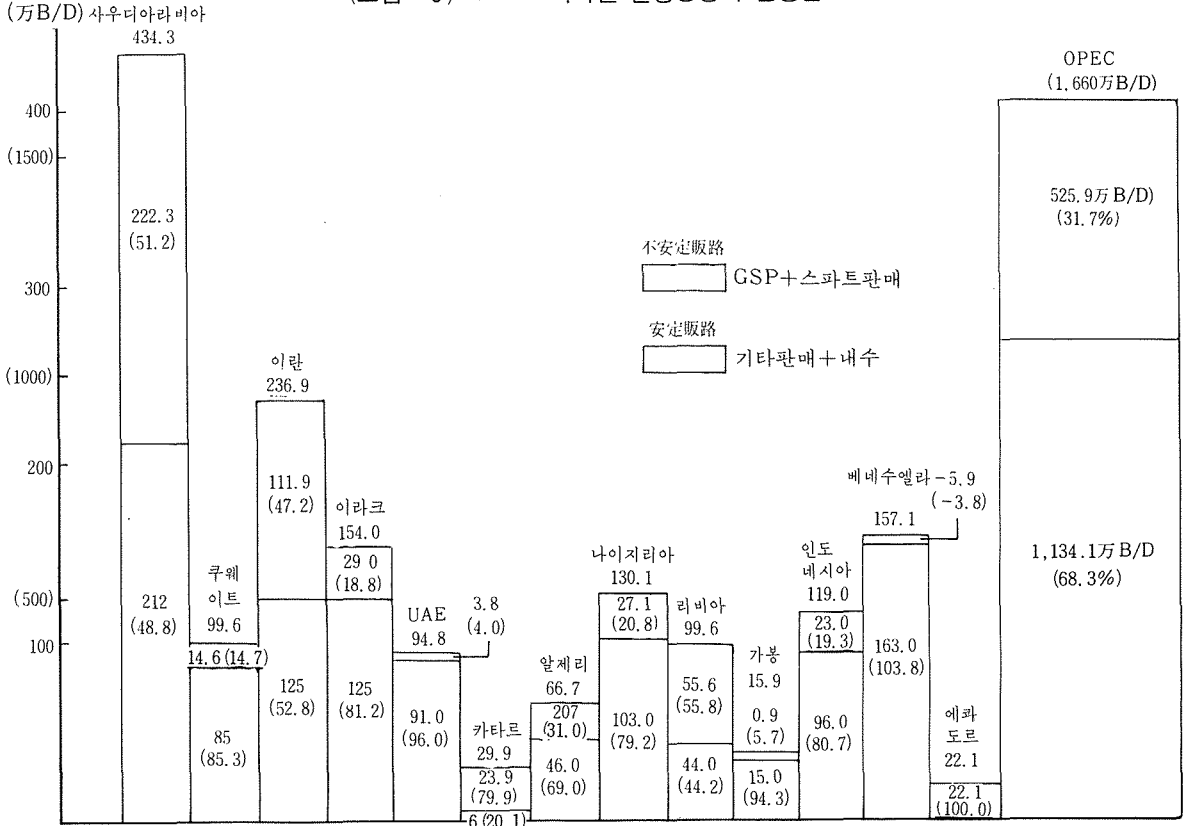
3. OPEC 석유거래 형태의 변화

제2차 석유위기 이후의 석유공급과잉 와중에서 OPEC 산유국은 스파트, 카운터트레이드, 제품수출등 석유거래형태를 다양화 시킴으로써 판로의 안정을 꾀했다. 이미 1985년 중반에 1,200만배럴 정도의 OPEC 석유판매중 저렴한 공식판매가격에 의한 장기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300만배럴까지 감소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네트백 판매개시에 의해 1986년에 접어들어 네트백 판매량은 급증, 판매량 전체를 신장시켰다. 그밖에 기간계약도 스파트 연동등 시황연동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네트백 이외의 판매방법은 양적으로 볼 때 크게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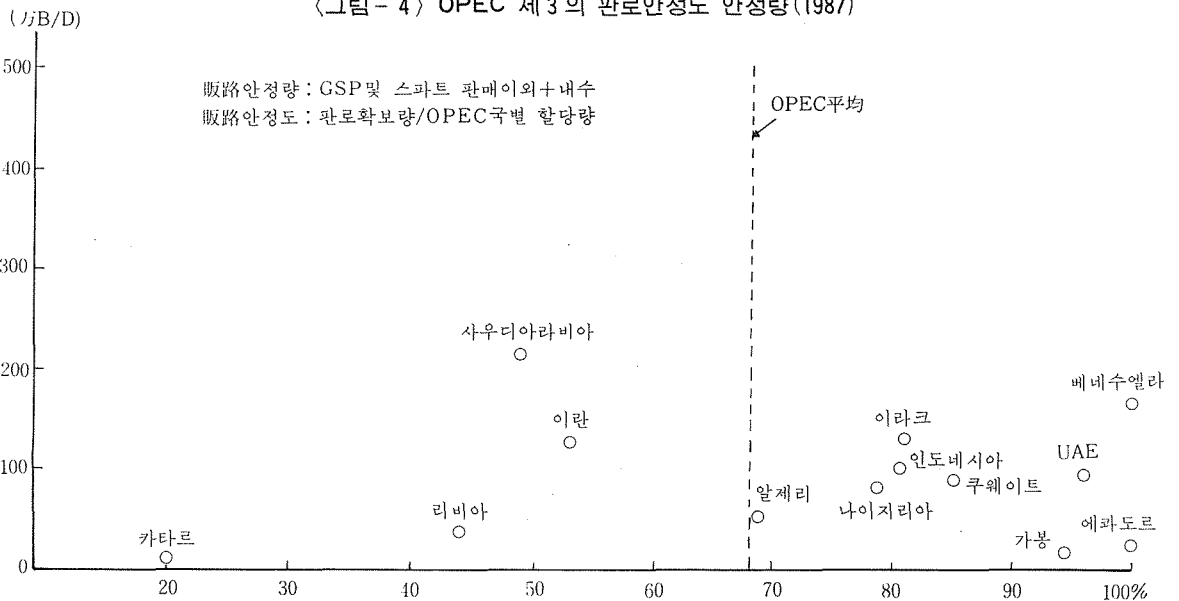
1986년 중반 자유세계의 石油거래형태를 보면, 총거래량

〈그림 - 3〉 OPEC 국가별 할당량중의 안정판로



〈註〉 ()속의 숫자는 OPEC계

〈그림 - 4〉 OPEC 제 3의 판로안정도 안정량(1987)



2,406만B/D 가운데 네트백 25.6%, 제품수출 16.1%, 스파트 판매 13.7%, 스파트연동 장기계약 12.3%, 지분원유판매 10.3%, 카운터트레이드 8.4%로 구성되어 있다. OPEC와 非OPEC를 비교하면 OPEC에서는 네트백(OPEC 총판매량 1,577만 배럴중 36%), 카운터트레이드(11.4%)의 비중이 크고 非OPEC에서는 스파트판매(비OPEC 총판매량 829만배럴중 28.6%), 스파트 판매(비OPEC 총판매량 829만배럴중 28.6%), 스파

트 연동(20.9)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4. OPEC 石油거래 형태의 현황

1987년 2월부터 OPEC 공시판매가격이 부활되었다. 1986년 중반과 87년 중반을 비교해보면 네트백, 스파트 연동등 상황연동형의 기간계약이 공식판매가격에 의한 장기계약

(表 - 3) OPEC의 석유공급형태 (86년, 87년)

(單位 : 万 B/D)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아부다비	두바이	카타르	알제리	나이지리아	리비아	가봉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OPEC 합
原油 수출 86	335	105	160	128	77	33	28	14	129	107	15	79	98	29	1,338
87	290	45	145	45	56	34	20	14	94	70	15	70	93	4	1,095
장기계약 86	285	60	110	45	24	33	23	11	52	72	4	39	35	14	807
87	213	10	75	45	20	34	20	13	27	48	4	35	34	4	582
公式販賣價格 8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7	208	10	60	45	20	0	20	3	14	48	0	35	26	0	499
公式(契約)價格 86	0	0	0	0	0	0	0	0	0	0	0	39	0	0	39
8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스파트連動 86	0	30	0	30	0	33	5	0	0	0	0	0	0	0	122
87	0	0	0	0	0	34	0	0	0	0	0	0	0	0	34
네트백 86	280	30	95	10	24	0	18	11	52	72	0	0	0	0	568
8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86	0	0	15	5	0	0	0	0	0	0	4	0	35	14	78
87	5	0	15	0	0	0	0	0	13	0	4	0	8	4	49
스파트販賣 86	0	20	20	30	0	0	0	0	10	0	0	0	0	13	93
87	0	10	30	20	0	0	0	0	0	0	0	0	0	0	60
지분원유 86	10	10	0	0	50	0	0	0	47	2	11	40	0	2	172
87	10	10	0	0	36	0	0	0	37	0	11	35	0	0	139
카운터트레이드 86	40	0	30	53	4	0	5	3	20	25	0	0	0	0	180
87	67	0	30	80	0	0	0	1	20	15	0	0	0	0	213
海外提携會社 86	0	13	0	0	0	0	0	0	0	8	0	0	63	0	84
87	0	15	0	0	0	0	0	0	0	7	0	0	59	0	81
委託精製 86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
87	0	0	10	0	0	0	0	0	10	0	0	0	0	0	20
石油製品수출 86	40	40	0	17	13	0	4	32	2	10	0	15	75	2	239
87	50	50	0	15	13	0	4	31	2	10	0	15	60	0	250
제3자 86	20	20	0	17	13	0	4	32	2	10	0	15	42	0	164
87	25	30	0	15	13	0	4	31	2	10	0	15	27	0	172
海外提携會社 86	20	20	0	0	0	0	0	0	0	0	0	0	33	0	73
87	25	20	0	0	0	0	0	0	0	0	0	0	33	0	78
輸出計 86	375	135	160	145	90	33	32	46	131	117	15	94	173	31	1,577
87	340	95	145	160	69	34	24	45	96	80	15	85	153	4	1,345

(註) 아부다비 및 두바이는 U. A. E국의 6개토후국중 2곳임.

으로 바뀜에 따라 계약량이 급속히 감소, 전체거래량이 대폭 축소되었다. 지분원유, 카운터트레이드, 해외자회사의 공급등 기타 거래량은 절대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결국 공식판매가격에 의한 판매량은 OPEC 석유판매 전체 1,345만B/D중 37.1%에 지나지 않았다.

산유국별로 보면 아부다비, 나이지리아, 가봉, 인도네시아는 지분원유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 카운터트레이드에 의한 石油의 주요 공급국으로는 이라크, 이란, 사우디, 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제품포함)를 들 수 있다. 석유제품의 주요공급국은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사우디, 알제리이다. 더구나 베네수엘라, 쿠웨이트는 소비국에 있는 자회사, 합병회사에 대한 원유 및 제품의 공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OPEC 전 회원산유국이 공식판매가격 이외의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도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87년 중반 石油판매중 공식판매가격과 스팟 판매량 이외를 안정판로로 하고 그 하반기 국별 생산할당량에 대한 비율을 판로안정도라 할때, 베네수엘라, UAE, 가봉, 에콰도르등이 100%에 접근하는데 대해 사우디, 이란, 카타르 등은 대단히 낮다. 이것은 판로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5. OPEC 생산정책과 판매정책

石油의 단기적 균형가격은 이론적으로는 한계공급자의 조업코스트로 규정되는데 현재로는 배럴당 5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상한과 공식판매가격의 부활에 의해 OPEC는 또 다시 실질적인「한계공급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공식판매가격을 실질적 「한계코스트」라고 한다면 수요변동을 혼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 OPEC는 82년 봄부터 생산협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82년과 84년 협정은 실패, 83년 3월 배럴당 5달러 가격인하와 86년의 가격폭락을 야기시켰다. 어느 경우에도 계절변동에 융통성이 없는 생산상한의 경직성과 일부 가맹국의 산유량 협정 위반때문에 자국할당량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에서 생산을 해야 했던 사우디 아라비아의 가격정책 변경이 가격폭락의 계기가 되었다.

87년 협정에서는 생산상한의 계절변동, 일률적 감산방식 등 개선점이 제기되었으나, 판매확보도가 낮은 사우디, 이란등에 일방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었다. OPEC가 18달러 이상에서 가격이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수요보다는 약간 낮게 한편으로는 기동성있게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순간석유정책〉

